

문 대통령 “확산세 중대기로...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범국가 총력체제 대응...고통 길어져 국민들께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

야 한다”며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준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기로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6일부터 맞는 50대 화이자백신 2차 간격 4주로

“피접종자·의료기관 접종 편의 고려...원활한 백신 접종 진행 위한 것”

권준우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백신 접종간격이 화이자 3주, 모더나는 4주로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6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본부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접종 예정자는 당일 건강상태와 출장, 시험일정 등 개인사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접종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7~8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충분하지만 접종기관별 예약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공급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접종자부터 한시적으로 8월까지 2차 접종예약을 4주를 기준으로 적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50대 연령층 등은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을 실시해 2차접종일이 4주 후로 잡혀 있으나 화이자 백신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예약일을 3주 후로 일괄 변경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전체 예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초 예약대로 4주 간격 접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일 대상군에 대해 mRNA 백신 2종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백신 접종간격이 다르면 사전에 2차 접종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도 화이자와 모더나 동시 사용에 따라 접종효율과 혼선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권 2본부장은 “다만, 이미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안내대로 3주 간격이 유지되며, 오는 28일 접종이 시작되는 초중등 교직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에 대해서는 학사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3주 간격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대 연령층 약 740만 명 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mRNA 백신의 2차 접종일 기준 조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는 약 1만 3000곳의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55~59세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23일 기준으로 50대 연령층 약 740만 명 중 약 600만 명이 예약을 완료하면서 예약률 80.9%를 보였다. 50대 연령층 접종은 mRNA 백신 2종인 화이자와 모더나를 사용하는데,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되는 55~59세 접종에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은 화이자를, 이 외의 지역은 모더나로 접종할 예정이다.

권 2본부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백신의 접종 간격을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주에서 16주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하는 mRNA 백신인 화이자 백

코로나19 극복 위한 문체부 2차 추경 2,918억 원 확정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창출 및 소비활인권 등 사업비 1,418억 원 관광업계 지원 사업 추진 위한 관광자금 재원 확충 1,500억 원

Table with 4 columns: 사업 (Project), 내용 (Content), 예산액 (Budget), 예상 일자리 (Expected Jobs). Rows include arts, sports, and tourism project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 예산(세출)은 1,418억 원으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활인권 사업 등이 반영됐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채용 지원 등에 1,023억 원 투입, 일자리 27,740개 창출 예상.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고,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는 등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공간 지원(151억 원) 확대 등을 통해 관광·체육 분야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영화관람·체육시설 이용 및 문화향유 확대에 395억 원 투입, 267만 명 혜택. 문체부는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활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더불어,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

[칼럼] 25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질병의 창궐로 인류가 신음하는 동안 세계 각국별로 다양한 처방이 나왔다. 백신도 그렇거니와 대처 방안도 모두 달랐다. 어떤 나라에서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어도 백신도 거부한 채 발병국인 중국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청정국가인 것처럼 입을 싹 닦고 괜찮은 척 한다. 일본에서는 그 와중에 분전생각났는지 올림픽을 억지로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다. 남들이 선다고 우리도 서고 앉다고 우리도 앉아야 할까. 한국만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대안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나 국민이나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체질과 환경에 맞는 대처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역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병 초기의 초동대처는 이미 지나간 얘기니 해박야 소용없는 것이고 처해진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같이 연구해보자. 가장 먼저 삼복더위에 애쓰는 의료진의 노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 한번쯤 진단키트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코 안쪽에 찢어 넣는 면봉에 대한 구분은 영 찜찜하다. 반대로 수도 없이 납의 쿡쿡뽕에 찢어 넣어야 하는 의료진은 어떨까. 지인 중 의료진이 있어 들리는 말을 전하자면 방역복 입고 몇 겹의 마스크를 쓴 채 하루에 수십 명씩 진단을 해야 하는 일이 여간 곤욕이 아니라고 한다. 사명감 없이 며칠도 하기 힘든 일이라며 어쩌다 방송국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폼 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한다. 말만 번지르르한 정치인들 일주일만 해보라 하면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고 한다. 특히 의료진에 대해 덕분에 챌린지는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들의 노고를 배경삼아 엄지척 하며 인지도 높이는 압제축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냥 고생 하는 것 알면 조용히 냉귀피라도 들고 정중히 인사할 건네는 것이 진정한 격려라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일선 단체장이나 온갖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다 써먹는 통에 의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들러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짚고 가야 할 진실과 길으로 포장된 가식의 차이점이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누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경제적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지 책상머리에 앉아 고민한 사람들의 정책적 실패를 지적한다. 필자가 이미 수십 번도 더 어필한 내용이다. 정부가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73만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2021년 7월 24일 5차 지원금이 국회와 통과하면서 상위 12%가 제외됐다. 이점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가감한 것이라며 성토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88%만 지급하려고 12%를 골라내는 행정비효이 더 들어갈 것이 손실이라며 소득으로 편 가르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퍼주는 정부와 이를 받으려는 국민과의 소통부재도 원인이었다. 신청조차 할 줄 모르고 한다 쳐도

이래저래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하는 층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심지어 2020년 1차 지급 때 못 받은 7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기부한 게 아니라 신청조차 할 줄 몰라서 못 받은 것을 기부한 걸로 치부해 버렸다는 점이다. 망연자실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을 기부한 걸로 집계한 정부, 이런 게 곁도는 정책의 단면이다.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더해보면 1차 약 14조원, 2차 7.8조원, 3차 4조원, 4차 20조원, 5차 약 8.6조, 이번에 결정된 1인당 25만원은 쓸데 없이만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으로도 가난을 구체적으로 구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은 25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때 되면 월급 꼬박 나오는 공직자이거나 생활이 안정된 정규직이야 수입이 고정되어 있고 작은 돈이라도 예상외로 생긴다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겠지만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시기적으로 소용이 없다는 뜻도 담겨있다. 사람은 생긴 것이나 사는 집도 심지어 각자 음식을 씹는 구강구조와 대변을 보는 항문구조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25만원이라는 획일적인 금액으로 각자의 다른 점을 같게 해결한다? 대한민국만의 정황은 일체 참고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전시 행정적 처사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나 당장 단전·단수에 편의점 빵이라도 훔쳐야 살 수 있는 국민을 똑같은 잣대로 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로 재는 사람의 눈높이가 딱딱한 플라스틱 자를 갖고 있으면 이라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죽겠다는 국민과 나름 살만한 국민을 현실에 맞게 재어보는 줄자로 다시 재야한다.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단전·단수 가구를 전면 해제시켜야 한다. 25만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못 산다. 전국의 동주민센터에 고금형이 아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급형 생필품을 무상 공급하고 최소한의 구조요청을 위해서 전국민 통신 기본요금을 대납해야 한다. 그동안 잘 벌어먹었던 통신사와 정부가 적당한 분담하여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통신이 막히지 않도록 숨통을 터놔야 한다.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이 아니라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실행과정에서 이리저리 해먹는 자들이 열을 낸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전해주는데 전달과정에서 열 컵이 소모되는 것과 같다. 사람은 앉으면 높고 싶은 것이다. 25만원이 중간에 새는 것이 없이 잘 전달되었다 치자, 25만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다음 그다음은 어쩔 것인가. 언제까지 퍼줄 수 있으며 극단적 위기에 몰린 국민들이 제대로 죽었다고 아우성치면 그때 지급처럼 해 줄 수조차 없게 된다. 이게 정책인가.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옆집의 잠긴문이 사각지대이며 25만원이 없어서 삶을 포기할 자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국이 아니라 자국의 결식아동부터 챙기는 것이 급선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본부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접종 예정자는 당일 건강상태와 출장, 시험일정 등 개인사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접종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7~8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충분하지만 접종기관별 예약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공급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본부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백신의 접종 간격을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주에서 16주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하는 mRNA 백신인 화이자 백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본부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접종 예정자는 당일 건강상태와 출장, 시험일정 등 개인사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접종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7~8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충분하지만 접종기관별 예약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공급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본부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백신의 접종 간격을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주에서 16주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하는 mRNA 백신인 화이자 백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본부장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접종간격을 상황에 따라 최대 6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의 접종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접종 예정자는 당일 건강상태와 출장, 시험일정 등 개인사정과 의료기관의 접종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진행 중인 접종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7~8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 총량은 충분하지만 접종기관별 예약을 대비해서 세부적인 공급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2본부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원칙적으로는 백신의 접종 간격을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6주에서 16주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하는 mRNA 백신인 화이자 백

전순희/기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 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

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경정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제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주관부처(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제정 등)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 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 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후 중대

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광수/기자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위한 법적근거 생긴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은 7월 21일,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담은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등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수 및 관할 위원회수에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선거인수가 약 1,100만 여명으로 전국 선거인수의 1/4이나 된다. 관할 구·시·군위원회 수(42개)는 서울·전남·경북·경남의 2배 정도이고, 다른 광역시(광주·대전·울산 등)의 약 8배(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지역만 따로 보면, 시·군위원회 14개, 선거인 330만 여명 규모로서, 위원회수는 광역자치단체 7곳보다 많고, 선거인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른 모

든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3위 수준이다.

시·도선거관위의 직원수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 관할 선거인수 120만여 명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수가 33~34명인 데 반해, 관할 선거인수가 그 9배를 넘는 1,100만여 명인 경기도선거관위의 직원수는 그 2배도 안 되는 57명뿐이다. 이러한 수치가 바로 경기도선거관위의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미 1개의 구·시·군에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처럼 1개의 시·도 안에도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현재 경기도선거관위가 공간적 한계와 업무의 포화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선거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경기북부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최광수/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친화적 자치경찰하겠다며, 의회 경시"

지난 7월 1일 주민친화적 자치경찰을 표방하며 공식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벼락치고 있어 도의회와 도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22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다만 법령에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에게 보고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같은 자치경찰위원장의 발언에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이형규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면서, 전라북도는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운영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많은 상황

에서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독립이 아니고, 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며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사무국장에 게 발언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며 "자치경찰위원장의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김승일/기자

윤지영 의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게 조례를 제정하다!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에 한줄만 있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윤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각 호 모두가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대한 공시부분은 반드시 주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남궁영기/기자

북구의회, '의정지원관' 제도 운영방안 논의

의정지원관 구성 및 의회사무국 개편 준비에 박차

광주 북구의회 '의회제도개선준비단'(단장 이정철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 검토와 신설되는 의정지원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의정지원관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지방의회에 배치하고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등 지방의원들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의 정무적 활동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준비단은 새로 신설될 의정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직급,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갔다. 또한 인력충원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국 조직확대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정철 단장은 "행안부의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 세부규정이 담긴 시행령 초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의회 제도개선 준비단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단장은 이어 "지방의회 발전과 강화된 자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북구청과 북구의회 간 상생협력의 바탕이 이루어져야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윤/기자



최선 의원, "노동자 고용불안 외면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신속 추진할 것!"

최선 의원, 7개월째 담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담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 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을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 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으 버 님 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 프즈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집국 : 02) 2612-2959
팩 스 :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중구, 동대문 100개 도매업체에 온라인 진출 지원

중구가 동대문 전통시장 도매상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온라인 판매 진출을 적극 지원해 동대문 패션타운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대문의 패션 도매업체는 2만 5천여 개 정도로 오랫동안 인터넷 불모지였지만 각종 SNS에서 한류 패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마켓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통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에 구는 동대문 상인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비즈니스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지원 프로젝트를 한다.

단편적인 지원 대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 온라인 스토어 개설 ▲ 상품 촬영 ▲ 라이브 판매 방송 ▲ 글로벌 진출로 체계적인 종합 지원을 마련했다.

업체별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 후 1개월간 상품 업로드를 지원한다. 관련 교육은 물론 셀럽, MD 등 전문가와 판매 상품을 선정하고 상품 촬영, 바이어라운지 쇼룸 전시와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촬영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업체 홍보 동영상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21년 핫 키워드로 떠오른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입을 돕기 위해 8월부터 월 1회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함께 하고 온라인 판매 시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물류 배송 등의 과정까지 지원한다.

프로젝트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

까지이며 동대문 패션타운 내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DDP 패션몰 4층 동대문 바이어라운지에 현장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지난 18년 조성한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는 국내외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공간이자 동대문시장 우수 상품 및 특화 브랜드 홍보로 신규 바이어 유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DDP패션몰 4층에 있다.

동대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업체는 DMI네트웍스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패션 제품의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해온 라이브 커머스 방송 및 교육 전문 회사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대문 소상공인들에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새로운 판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B2B 판매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 수출을 위한 동대문 온라인 개설과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의 중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며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폐업소상공인지원 신청기간 연장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31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7월 30일까지는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기간 중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폐업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천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성동구, 코로나19 극복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서울 성동구가 다음달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37명을 선정해 총 1,74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로 추진, 선정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에 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천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구는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초까지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 서류인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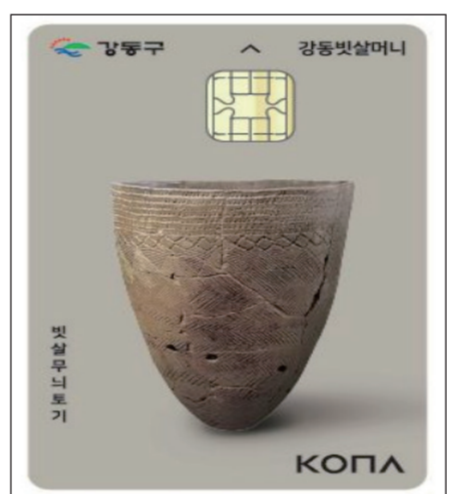
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강동구, '강동빛살머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있었다... AI·빅데이터로 입증



강동구에서 자치구 최초로 발행한 카드형 지역화폐 '강동빛살머니'가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진·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니 총진액은 총 183.8억 원, 결제액은 총 150.4억 원으로, 총진금액의 82%는 관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졌다. 2020년 11월부터는 매달 10억 원 이상 결제액이 꾸준히 발생하여 매출 증대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동구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가능한 빛살머니의 지역 내 경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의식주·교육·병원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결제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화폐 발행이 주민들의 생활소비와 소상공인 사업장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눈에여겨 볼 점은 타 지역 주민들의 빛살머니 이용도 많았다는 것이다. 강동구와 인접한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경기 하남시·남양주시·성남시' 거주자들의 총진·결제금액이 높아 빛살머니로 인한 외부 매출유입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지역화폐 발행으로 주민의 경제적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효과가 있음이 정량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앞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더욱 확대하고, 이번 인공지능(AI)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민의 지역화폐 이용패턴을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는 향후 지역화폐 발행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이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지역화폐인 '강동사랑상품권'은 오는 10월까지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규석/기자

종로구,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친환경 행보 '다회용 컵' 사업 박차

종로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크고 작은 실천을 토대로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달 22일 구청장실에서 ㈜KB국민카드와 '탄소다이아터트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다회용 컵 사용 촉진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보존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구에서는 다회용 컵 제작과 홍보, 이벤트 추진 등을 ㈜KB국민카드와 다회용 컵 세척과 사내 홍보, 이벤트 참여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그룹을 구성한 바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아홉 차례 회의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쳤다. 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비 부담, 실행에 이르기까지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 끝에 내달 2일부터 추진하는 친환경 다회용 컵 사업은 구청사 '플러스카페', ㈜KB국민카드 분사 '다다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친환경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회용 컵 이름은 '1.5°C컵'으로 정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상승온도를 1.5도 이내로 지키려는 종로구와 ㈜KB국민카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사용 후 반납한 컵은 건물 각 층에 배치된 반납함에서 수거해 전문 세척업체에서 110도 이상의 고열·고압 세척과 살균 처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치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청결 문제에 있어 일회용 컵보다 안전하다는 게 종로구의 설명이다.

한편 종로구는 기후변화 주 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후행동 프로젝트 '1·1·1 생활실천운동'을 추진 중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1인당 1년 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생활수칙을 실천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이밖에도 '종로구 기후행동 실천협의회' 운영,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습관을 바꾸는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어린이 111 생활실천운동' 등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선보여 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KB국민카드와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종로구 기후행동 실천협의회'의 첫 번째 공동 실천과제"임을 밝히며 "하나뿐인 지구 살리기를 위해 주민 밀착형 실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친환경 다회용 컵 사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조상순/기자



용산구,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려 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

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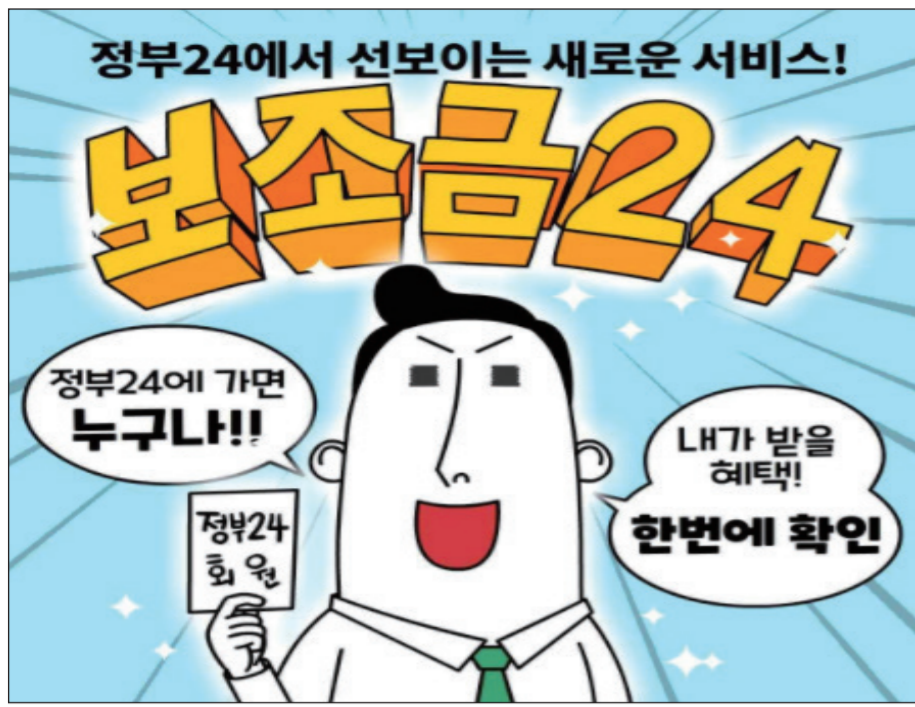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

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화군, '보조금24' 서비스 홍보

강화군이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보조금24'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이다.

현재 자녀예방접종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300여종의 중앙부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 연말에는 인천시 및 강화군의 6,000여종의 서비스 제공되며, 2022년에는 공공기관 서비스도 제

공된다.

온라인에서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정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면 동일한 맞춤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방문 없이 보조금24에서 맞춤형으로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께서 보조금24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고대 그리스 시인 '사포'의 삶, 신촌문화발전소 무대에서 만난다

고대 그리스 시인 '사포'의 삶 재탄생시켜

서대문구가 '오드아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작품 '구슬정원'을 신촌문화발전소(연세로2나길 57)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양쪽 홍채의 색깔이 서로 다른 눈'이라는 '오드아이'의 사전적 의미처럼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안의 다양한 현실과 답론에 대해 개성적 관점과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작품을 집필한 극작가들의 연극을 소개한다.

공연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신촌문화발전소 '창작과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올해 4월 극작가 장영의 'FAN'(연출 김미란)에 이어, 6월에는 극작가 이홍도의 '이홍도 자서전(나의 극작 인생)'(연출 송이원)이 관객을 만났다.

이번에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안정민을 필두로 새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극적 형식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창작집단 푸른수염'의 신작 '구슬정원'이 무대에 오른다.

'구슬정원'은 서양 역사 최초의 여류시인으로 알려진 '사포(Sappho)'에 대한 이야기로, 사포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열 번째 뮤즈'라고 칭했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이었지만 현재

사포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사포가 남긴 시도 대부분 소실돼 몇 개를 제외하면 온전히 남아있지 않다. 안정민 작/연출가는 사포의 삶과 짧은 시를 단초로 보수적인 아테네 사회 속에서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 작가로 그녀를 재탄생시킨다.

극작가 안정민은 국립극단 '젊은작가전'에서 '고독한 목욕'으로 등단한 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초록빛 목소리'를 발표했다. '2020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공모에서 '달걀의 일로 선정돼 공연했으며 여기에서 새로운 여성 서사를 만들어 내는 여성 영웅의 이야기로 주목받았다.

'구슬정원'은 포털사이트(네이버) 예약을 통해 13세 이상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시간은 70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관람 정원을 전체 객석수의 30% 이내로 제한 운영하며 모든 관객들에 대해 체온을 측정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신촌문화발전소는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예술인의 창작 단계에 따른 세부 준비 과정을 지원해 다음 단계의 작품 창작 및 예술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작과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상순기자

동대문구, "버린 만큼만 내세요" RFID종량기 설치지원

동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RFID종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 중이며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RFID종량기는 세대별 배출카드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개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무인 승차로 인한 과다배출을 방지하고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RFID종량기 설치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설치 전 대비 34%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통 외부 노출을 방지하는 구조로 미관 개선 및 악취 저감 효과도 있어 이용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RFID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동대문구 내 93개 단지에 521대가 설치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57,118세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40,215세대가 RFID종량기를 이용 중이다.

아직 RFID종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세대 이상 일반주택은 10월 29일까지 설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15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경우 선불식 결제 방식(터미너 협약)인 종량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보수까지 구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 RFID종량기 관련 메뉴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전자메일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RFID종량기를 이용해 음식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이재현 서구청장, "폭염 대비 철저" ...발전소 등 현장 방문

폭염에 전력 수급, 악취 문제 등 돌발상황 없도록 꼼꼼히 살피

이재현 서구청장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철 악취에 관한 현장 방문,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이 청장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가좌사업소를 방문해 서구 내 11개 동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시설 현황 설명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최근 무더위로 정화시설 악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중부발전을 방문해 "여름철 늘어난 전력수요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쳐 주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수처리 및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거 안정성 및 경관 개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외부 경관 개선(지붕, 옥상, 외벽, 창호 등) ▲상가는 내·외부 개선 리모델링을 지원해준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서구 가좌로 214)에서 참여 희망자 상담 및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또는 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상균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코로나 19로 지역과 공동체가 침체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금반'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서구 가좌-박남동) 도시재생뉴딜 2021 하반기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원기간 : 2021. 7. 15(목) ~ 2021. 7. 28(수)

신청방법 : 032-884-8665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구로구, 무더위보다 뜨거운 이웃 사랑으로 더위 극복!

덴탈마스크, 손소독제, 꽃송이 버섯, 도시락, 과일... 나눔 행렬 이어져



이웃을 향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사랑 나눔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덴탈마스크 30만장을, (취약토리아선인터내셔널(대표 이계진)이 손소독제 8,000개를, 15일에는 (사)해피피플(이사장 박희)이 뿌리는 살균제 6,963개를, 8일에는 (취아보브네이처(대표 박명규)가 손소독제 11만4,000개와 손소독티슈 5만3,040개를 전달했다.

13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종문), (취구뚜라미에너지(대표 이명호)와 함께 가스안전점검 및 안전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0월까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0여 가구에 맞춤형 가스 안전기기를 보급, 점검한다.

팜엑스 협동조합(이사 옥명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2일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에 꽃송이 버섯 3kg(100g 30박스)를 전했다.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백신 예방접종센터 2호점(오류문화센터) 종사자들에게 8일 남현교회(담임목사 윤영배)가 도시락 45개를 전달했다.

동별로도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

친 이웃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구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우기)가 14일 저소득 가정과 어르신 100가구에 소머리국밥, 밀반찬, 과일을 지원했다. 13일 오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인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장애인 대상 18가구를 위해 밀반찬을 전했다. 고척2동은 7일 홀몸어르신 40가구를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가 고척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석용식)의 후원을 받아 열무김치를 나눠드렸다. 6일 개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강현)가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60가구에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신도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구중)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신도림동 안동네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홍보전단지과 덴탈마스크 2,000장을 배부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이웃을 향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주민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포항시, 지정해수욕장 야간단속요원 추가 투입 행정명령 단속 강화

포항시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음주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단속요원 증원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인 8월 22일까지 지정해수욕장 6개소에 대한 야간(오후 7시 ~ 다음날 오전 9시) 음주·취식행위 금지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5인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추가로 단속요원 18명을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은 기존에 활동하던 야간 안전관리요원 12명, 영

일대해수욕장 지도단속요원 5명 등 17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된다.

단속요원들은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행위 등 야간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집중점검반 공무원을 2인 1조로 추가 편성해 해수욕장 운영 전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단장인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가급적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밀집도를 낮춰주시고, 야간에는 지자체의 단속뿐만 아니라 피서객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은 코로나 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21일, 관내 도시공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직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주민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11개소 도시공원을 도보 순찰했다. 이번 시행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음주 행위가 금지됨을 공원 이용 주민에게 안내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선동 곡선동장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김포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김포시는 도로변에 난립한 에어기둥, 베너간판 등 불법 입간판 일제 정비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속의 공백기가 길어짐에 따라 도로변에 불법 입간판 불법 신고가 폭주하는 실정이다. 불법 입간판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화려한 광고는 영주 간에 광고 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눈을 피로하게 하며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을 가리는 등의 불이익을 불러온다.

이에 김포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불법 광고물은 즉시 제거 가능하나 경고장을 부착하여 위반자 스스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과 7월 2일 풍무동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에 불법광고물 262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여 시민들의 동참으로 90%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

향후 미이행 업소의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하여는 단속반이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풍무동에 이어 이번 7월 21일은 무더위에도 단속을 미룰 수 없어 민원이 가장 많은 구래동 상가 밀집지역 불법 에어기둥 110개에 대하여 7월 30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김포시는 전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포시 클린도시과장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어린이공원 및 녹지 내 행정명령 위반 민관 합동단속 추진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이 고시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어린이공원 33개소 및 녹지 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및 녹지 내 음주 금지 등 행정명령을 7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 금지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내 어린이공원이 위치한 5개동(대화동, 송산동,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어머니방범대, 자율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서구 환경녹지와 직원들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매주 1회 이상 18시 이후 관내 어린이공원을 순찰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3인 이상 집합, 22시 이후 음주행위 등 위반사항이다.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이에 불응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녹지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음주행위 금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창원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위반 집중 단속 실시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1461개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집단감염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 146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영장, 무도장의 경우 22시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m2 당 1명(체육도장, GX류 6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 다만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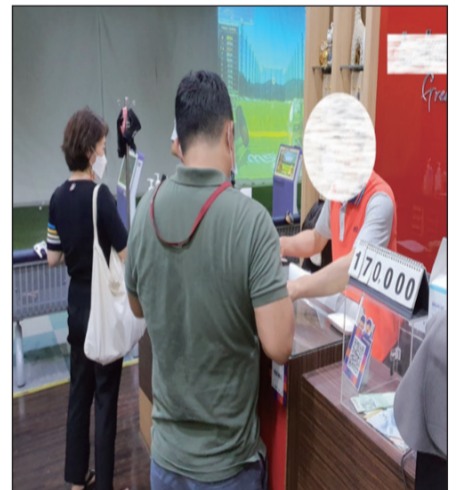
이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 시설의 집합금지, 운영 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반영한 결과다. 시는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사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시설면적 이용 인원 준수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준수 여부 △ 손 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 환기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다.

시는 감염경로 대부분이 개인 간의 사적 활동을 통해 비롯되어 다시 지인과 가족 간 전파로 이어지는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내·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분이 체육시설을 방문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한주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함양군 산양삼 불법유통행위 민·관 합동 집중단속

오는 9월 2021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이 산양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펼친다.

함양군에 따르면 22일부터 오는 9월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 전까지 지역 내 산양삼 판매장과 전통시장,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위법 불량삼이 유통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군,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이 참여하여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의 품질검사 및 포장규격 적합여부, 합격증 미부착,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적합여부 등 적법하게 판매되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폐기 처분하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전국 유일 산양삼 지킴이도 병행 단속하여 함양에서는 불량삼이 한 뿌리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가오는 엑스포 준비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5월부터 10월 까지 전국 유일의 산양삼 지킴이 활동을 비롯하여 전국 유일의 산양삼 경매장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명품 산양삼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더샵 오산 엘리포레

최대호 안양시장, 여성안전이 행복으로 가는 길.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 팔걸어

국토교통부 7월 '스마트시티 온라인투어' 안전도시 선정도

안양은 전국에서도 안전한 도시로 정평이 나왔다. 특히 여성의 안전이 모두의 안전이자 행복이라는 신념으로 여성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양시가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선7기 3년에 관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로 안전(36.4%)을 꼽았다.

시청사 7층에 설치된 스마트도시 통합센터(구 U통합상황실)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여성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에 매진해오고 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안양시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안전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앱과 CCTV를 연계해 각종 범죄에 대비할 수 있어 야간시간대 주택가나 골목길을 걷는 여성들에게 유용하다.

금년 2월까지를 기준으로 앱 다운로드 횟수가 1만5천2백여회에 달했다. 현재 경기도 16개 지자체가 공동 활용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를 앞둔 상태다. 지난 6월에는 안전귀가 앱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간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더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여성거주 가정에 설치된 안심단말



가는 외부 침입 시 동작감지센서를 활용, 휴대폰 메시지 전송 및 관제센터(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연결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혼자 사는 여성가정에 361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감지 및 비상버튼이나 음성인식 단말기를 활용, 고령자 응급실 긴급 이송을 위한 스마트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1천2백대가 배부됐다. 사업을 첫 시행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01명이 이 서비스로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가 7월 들어 진행한 '스마트시티 온라인투어'에서 전국의 대표적 안전도시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시의 독거노인 스마트

안심서비스와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 시행 장면이 영상으로 제작,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에 게시돼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들 운전방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객들의 안전도 구할 '운전자 안심 비상단말기'는 35명의 여성운전자 전원에게 보급됐다. 카메라(57대), 비상벨(120대), 로고젝터(20) 등이 설치된 여성안심주차장은 15개 공영주차장에서 운영 중이다.

관내 공중화장실 42개소는 여성안심존으로 지정, 여성출입구 쪽에 범죄로부터 즉시 신고 가능한 비상벨, 마이크, 경광등, CCTV 등이 설치돼 있다.

시는 이와 아울러 관내 공중화장

실 334개소 대상 불법촬영 점검과 범죄예방캠페인도 6천회 넘게 시는 실시했다. 올해는 일반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인 가운데 내년까지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 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어, 지역에서만큼은 화장실이 더 이상 범죄사각지대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비대면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을 5곳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관내 22개소 총 연장 6km구간을 '여성안심 거울길'로 조성했다. 이 길에는 뒤 따라오는 이의 확인 가능한 반사경(129개)을 비롯해 범죄 예방 및 신고를 안내하는 로고젝터와 각종 안내판 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밤길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여성이 안전해야 다수의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치 수도 높아지게 된다면 공약인 '여성안전폴리스' 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전했다.

원준균/기자

공무원증

송 해

가평군

소속 가평군
직위 군수
성명 송 해
생년월일 1927. 4. 27

2021. 7. 23.

가평군 **송 해**

가평군, '국민MC 송해' 가평군 명예군수로 위촉

가평군은 23일 송해를 제1대 가평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였다. 군은 당초 군수 집무실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위촉식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위촉식 없이 추후 임용장 전달로 같음하였으며, 향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가평군을 방문하여 명예군수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제1대 가평군 명예군수로 위촉된 송해는 'KBS 전국노래자랑' 사회자

로 40년 이상 활동하며 국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등 국민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 가평군 위상 제고와 가평군과의 맺은 인연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명예군수 위촉을 추진하였다.

한편, 가평군은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민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명예군수를 임명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양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면 연장... 올해 12월까지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면 연장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대부료를 100% 감면하거나 기간 연장 조치를 했으며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 사용·대부료의 80%를 감면해 총 1,200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시는 오는 7월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지원 대상자들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해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환급하거나 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미부과 사용·대부료는 감경된 금액으로 재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유재산 사용·대부로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시흥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 모집

시흥시는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8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들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는 총 10개 사업이다.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아동전환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보조기리탈서비스 ▲정신건강도발

케어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하하며 최대 170% 이하까지 있음)에 해당하는 가구다.

모집인원은 400명이다. 1인당 2개 서비스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로서 선정이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사본, 사업별 필요서류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배운다

수원시가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협력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추모예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공영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4대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엄숙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한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다.

수원시는 안치료·연습비·수의·관 등 시신을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영정 사진·향·초·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

(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이번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충분한 애도의 시간·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가족·지인들도 공영장례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최정근/기자

인수가 기피·거부돼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은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2018~2020)간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는 137건이다. 그중 51건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최정근/기자

광명시 평생학습원, 경기꿈의학교 학생들에게 문 활짝!

광명시-광명교육지원청, '평생학습 및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더 나은 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4월 철망산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한 광명시평생학습원이 학생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1호 평생학습도시이자 전국 최초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인 광명시는 22일 광명교육지원청과 '평생학습 및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욱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는 평생학습원 시설을 경기꿈의학교 활동 장소로 제공하고,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학습과 경기꿈의학교 발전을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7월부터 경



기꿈의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대관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평생학습원은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강의실, 강당, 전시실, 오손도손 북카페, 웃고 떠드는 도서관, 시민의 부엌, 장애인 평생학습센

터, 시민 사무실, 미디어실 등 학습하기 더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해

주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올해 총 44개의 꿈의학교가 운영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꿈의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은 시민의 것이 때문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시민 개인의 학습과 능력 개발을 위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론장을 통해 시민이 결정하고 광명시 시정협의회회에서 채택한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안(안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20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2차 이용자모집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10.(화)

대상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외 9개 사업

신청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140%이하(사업별로 상이)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하남경찰서-하남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MOU 체결

하남경찰서와 하남시는 22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대한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시민 피해 확산을 막고자 상호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남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사례 공유 등을 수행하고, 하남시는 유관단체 등 시민에 사례 전파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120건으로, 그 피해액이 무려 26억원 상당이다.

그 중 대한대출을 빙자해 현금 상

환을 요구하는 대면편취 수법이 전체 범죄의 92%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대형 하남경찰서장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이 최선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하남시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정하남 또는 SNS 등 시공식채널을 통한 홍보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회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14개 동 유관단체와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강호기자



안승남 구리시장, 시민 건의 추진상황 온라인 점검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현장 목소리 보고회 경청, 건의 사항 적극 해결

구리시는 22일 실무 담당 공무원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시민 건의 사항 추진 상황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제1, 2회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수렴한 건의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리시는 22일 실무 담당 공무원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시민 건의 사항 추진 상황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19년과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제1, 2회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수렴한 건의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결과 2019년도에 진행된 제1회 시민 건의 사항은 총 153건 중 133건이 종결됐고, 2020년도 제2회 시민 건의 사항은 총 120건 중 46건이 종결됐으며, 나머지 94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완료 33건, 추진 중 43건, 검토 중 4건, 장기 12건 및 불가 2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완료와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76건으로 80.8%를 차지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건의는 구리주택 행복주택 2호점과 갈매동 산마루 3호점을 오는 9월에 개소코로 했다. 이어 교문동 단독주택지역 도로 재포장 건의는 지난 6월에 도로정비공

사로 마무리됐다. 토평동 한일아파트 후문 자전거도로와 인도 불고임으로 인한 불편 건의사항은 주민참여예산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 7월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리담양주요급소 환승센터 주변 굴다리 보행환경 개선 건의는 2021년 2월 안승남 시장이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를 직접 방문 협의하여 굴다리 내부시설인 보행로 폭 확장, 조명 밝기 등을 개선 완료한 바 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많이 늘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자 꼼꼼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무 공직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를 담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시민께 답을 구합니다」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해 「구리시민 보고 대화」를 준비하여 담당 직원이 구리시민께 직접 답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식기자

용인시치인노인복지관, 폭염취약위험군 어르신 맞춤형 선풍기 지원받아



용인시치인노인복지관에서는 23일 지산그룹과 연계하여 복지관 바람골 카페(호)에서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은 지산그룹 한주식 회장이 참석하여 폭염취약군 어르신들을 위해 선풍기 100대를 후원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후원은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냉방기구(선풍기 또는 에어컨)가 없이 노릇이 부채에 의존하거나, 고장이 난 채로 사용이 어려워 방치한 어르신 100명에게 23일부터 지원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며, 온열질환 예방 및 여름철 안전사고를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풍기를 받으신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아서, 너무 더워도 집에서 부채에 의존했다. 선풍기를 준 덕분에 이번 여름은 집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거 같아 너무 고맙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주식 회장은 "이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조차 없으신 어르신들의 사정을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되었다. 선풍기로 어르신들의 여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후원의 뜻을 밝혔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명재성 덕양구청장, 코로나19 꺾는 '올인원 구정' 추진

지난 7월 5일 공식 취임한 명재성 제14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13일부터 23일까지 각 동 주요 현안사항 청취를 위한 19개동 행정복지센터 민생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취임 당일에도 장마철 수해 대비 관내 현장 방문으로 취임식을 겸한 명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청사 방문 대신 외부 민생 현장에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기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민생현장 방문으로 대체하는 등 '주민 상견례'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명 구청장의 소통 행보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2주간 현장 최일선에서 이러한 뜻을 구현한 명 구청장은 주민 숙원 사업 및 각종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등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명재성 덕양구청장은 "주민들과 함께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동 주민들은 물론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구(區)와 동(洞)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실시하고, 주민의 안전과 구정 발전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영기기자



여주시, 이항진 시장 'GTX-A 수서역 접속부 설치 비상대책회의 참석'

이항진 여주시장은 22일 원주시청에서 진행된 GTX-A노선 수서역 접속부 설치를 위한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 이천, 여주, 원주 4개 시 단체장은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실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4개 시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여주시는 오는 29일 여주시청에서 4개 시 통합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캠페인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욱기자

이항진 여주시장은 22일 원주시청에서 진행된 GTX-A노선 수서역 접속부 설치를 위한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 이천, 여주, 원주 4개 시 단체장은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은 수도권 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실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4개 시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위해 수서역 접속부 설치가 핵심 과제인 만큼 4개 시가 상호 협력하여 조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TICKER

네임스티커 & 각종 홍보판촉 스티커

전제품이 특수 방수 코팅 되어있어 컵이나 식기류에 붙여도 번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용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 홍보물에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TOPPER

기쁜날 감동을 두배로 케이크토퍼

기념일 축하, 여행 감성사진, 기업홍보, 이벤트에 빠질 수 없는 케이크토퍼
토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자인다해

디자인다해를 검색하세요

디자인다해 since 2013

www.designdahae.com

경북북부 최대 규모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 착공

안동농화축협이 추진하는 경북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현대식 도축시설인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7월 27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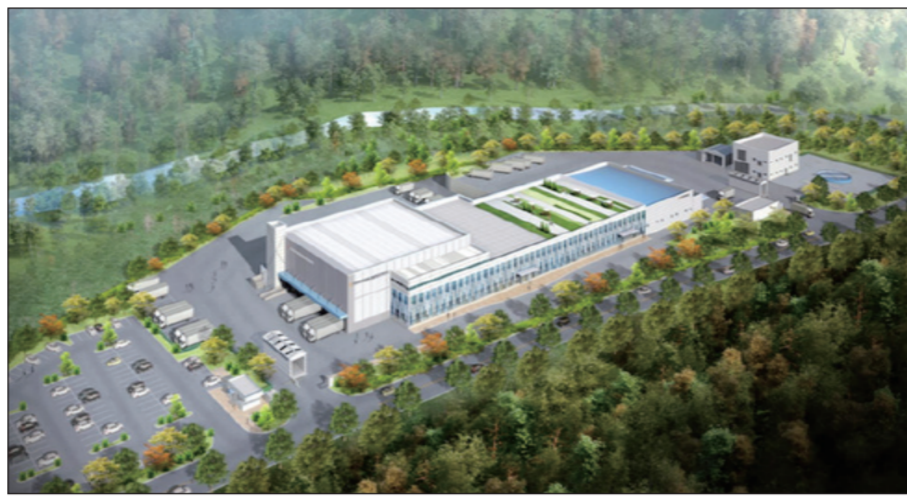
서후면 대두서리에 위치한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15년부터 건립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총 사업비 564억 원을 투입 49,345㎡의 부지에 건축면적 10,501㎡, 연건축면적 19,732㎡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된다.

1일 소 200두, 돼지 2,000두의 도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경매장, 육가공장, 계류장, 소독·세척시설, 오페수처리시설 등 현대식 시설을 설치해 202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북북부지역은 도축·

가공·생산·유통을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현대식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의 부재로 인해 지역 축산농가들이 경남, 충청권 등 타 지역 장거리 도축장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여 왔었다.

안동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완공되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가 가격안정, 축산농가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 축산물의 전국 유통망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위생수준을 갖춘 경북도내 대표 축산업 중심기지로 다양한 성과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축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역 축산인들의 염원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하루 빨리 완공되어 지역 축산물의 품질 개선과 대도시 유통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과 상생하는 유통센터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김천시 수도산와이너리,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대표 와인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 와인' 수상

김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도산와이너리가 과실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을 차지한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는 해발 1,317m에 이르는 수도산 자락에서 백 대표가 직접 유기농 산머루를 재배하여 오크통에 3년 이상 숙성 및 발효시켜 빛은 수도산와이너리의 대표 빈티지 와인이다.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청정지역에서 나온 와인답게 마셨을 때 달콤한 맛과 더불어 향긋한 풀향, 블랙베리 향을 음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향기로운 장미향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다채로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이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2021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한국 와인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수도산와이너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양조장을 대상으로 공모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에서 수려한 경관 및 와인의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2020년 경북에서 유일하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차 사업을 마치고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백 대표는 김천의 특산물인 자두를 담은 크라테 자두와인을 개발하여 올 10월 정식 출시 예정이고, 샤인머스켓 포도를 이용한 스파클링

와인도 개발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김천시 김병수 농식품유통과장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 스위트 와인'은 백 대표가 2001년부터 산머루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은 18,000㎡에 달하는 머루밭을 손수 일궈 밟아낸 산물이며 청와에도 납품할 만큼 품질이 보장된 와인으로 특별한 날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다"고 하며 "앞으로도 관내 농식품에 대한 판로확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대구시 폐의약품 분리배출, 141개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홍보 및 수거관련 구·군 평가 강화

"가정 내 폐의약품! 대구에서는 2021년 8월부터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시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돕기 위해, 기존에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버릴 수 있던 배출장소를 '21년 8월부터 141개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폐의약품을 하수도에 버리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무분별하게 배출할 경우, 폐의약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이 하천과 토양에 잔류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 폐의약품은 반드시 분리수거되어야 한다.

폐의약품은 10여 년 전부터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배출하도록 안내해왔으나, 배출 불편, 잘못된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량은 '18년 29,700kg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해왔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이 더 안전

하고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장소를 141개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하여 8개 구·군과 협의를 완료했다.

향후 대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폐의약품 배출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집중하고, 「구·군 자원순환행정평가」에 폐의약품 수거부담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과 불필요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의약품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번에 확대된 행정복지센터나 약국, 보건소에 분리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남궁영기자

편리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2021년 8월부터 대구에서는 "보건소", "약국"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폐의약품 배출이 가능합니다!

폐의약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황게 유해 폐기물"입니다.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 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처방약
- 기타의약품**: 모질제, 모질제, 모질제
- 물약(사탕)**: 한 병에 모질 수 있는 한병 모질제
- 안약·연고·비린는 물약**: 감에 흡입시킨 분리하여 폐기하고 용기째 배출

대구광역시

포항시, '착한가게' 현판식으로 나눔문화 확산한다

포항시는 2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한 장량동 엘리시아 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출액의 일정액(3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함으로써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가게이며 참여하는 가게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가게 현판이 수여된다.

박정옥 엘리시아 원장은 "좋은 기회를 통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한가게에 동참해 나눔문화를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판식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엘리시아 산후조리원은 2017년 11월 지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한 모습으로 아기들을 먼저 보호한 장면이 목격돼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김기현기자



울릉군, 공무원가족관사 준공식 개최

울릉군은 22일 울릉군 서면 남서리 마을에서 '울릉군 공무원 가족관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남진복 도의원, 최경환 의장, 지역 군 의원, 유관기관 및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울릉군 공무원가족관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4천6백만 원을 확보하여 서면 우산국박물관 맞은편 부지에 터를

다구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연립주택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975.4㎡, 전용면적 58㎡로 총 1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다.

김병수 군수는 "서면지역에 공무원가족관사가 완공되어 8월부터 공무원 가족 12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지역의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젊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구미시, 시설하우스 휴작기 '애플수박' 틈새농사 성공

딸기수확 후 휴작기, 두달간 틈새작목으로 애플수박 재배 첫시도

구미시는 시설하우스 딸기 수확 후 휴작기에 딸기 재배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속 특채 작목으로 애플수박 재배를 시도하였고 수확에 성공했다.

올해 애플수박 재배를 처음 시도한 늘봄딸기(대표 김태식)는 농업기술센터와 재배기술을 공유하여 6월 2일 모종을 정식하고, 7월 22일 첫 수확하여 총 재배기간은 두달이 안되며, 기존 큰 수박은 1포기당 1개의 수박을 생산하는데 비해 애플수박은 1포기당 3개를 생산하여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또한 애플수박은 1~2kg정도로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먹을 수 있으며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맛도 좋아 최근 소비트렌드를 적중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

으로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휴작기 틈새작목으로 애플수박을 좀 더 연구하여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규모화로 농가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상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상주시에서 OUT'

상주시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추진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는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예산 5억원을 수립했으며, 올해 2월 신청을 받아 보관 슬레이트 23,738㎡, 방치 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또는 하천변·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자체 보관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아직 관내에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 남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창녕 대합권역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추진 방향 논의

2022년부터 신규 착수지구 선정 추진 계획

창녕군은 대합권역 농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합권역 농경지 871ha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계별 관리구역 지정으로 농경지를 달성지사, 창녕지사에 분할해 관리하고 있다. 1970년도 수리시설물 설치 이후 대규모 개보수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용수로 누수 등으로 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규모 시설투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올해 4월에는 군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김명옥 부군수를 비롯

한 한국농어촌공사 정해용 창녕지사장, 김준기 달성지사장 등 관계자들은 노후된 수리시설물 현장 점검 후 대규모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 방향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창녕지사, 달성지사별로 2022년도 신규착수 지구(사업비 각 30억원 정도)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결과를 보고받은 한정우 군수는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사는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영명기자



경상남도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으로 차질 없는 현안 추진 당부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7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질 없는 도정 운영과 도-시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병필 권한대행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정이 흔들림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군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등 도와 시군이 공고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폭염 대비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사회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에게 기강 확립을 요청하며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18개 시군의 역할을 결집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최광용기자

양산시, '상복대석 교통광장' 홍릉사 관문도로 개통

양산시 상복면 구국도와 홍릉사로 통하는 상복대석 교통광장이 개통(교통광장 정비 3,383㎡, 도로확포장 L=122m, B=15~20m)되면서 산막공단 및 석계산업단지에서 35호 국도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 효과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보장 및 팔각정 정자,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해 지역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사업시행전 구국도에서 홍릉사를 통하는 구불어진 두 갈래 길(덕운육교 앞)이 아주 좁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에다 인근 산막공단을 오가는 대형차량이 이따금씩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이번 공사시행으로 광장내부 통과 도로(L=60m, B=20m)와 기존도로

확장(L=62m, B=15m), 일부구간 공원 조성해 획기적인 교통통행여건 및 홍릉사 진입부 경관이 크게 개선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국도 35호선에서 유입되는 교통량 분산 및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한식기자

박형준 시장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해 선제 대응”

23일 '부산시 초고령사회 대비 전담팀(TF)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부산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대비 전담팀(TF)」의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9월경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산시는 선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 부서에서 고령친화 관련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에서 발굴한 ▲어르신 사회참여 ▲사회통합 ▲환경 ▲돌봄 ▲신종면 지원사업

등 104개 고령친화 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령친화 방안들을 모색하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과 전담팀(TF) 회의 등을 통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는 26일에는 복지개발원과 함께 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부산의 노인복지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토론 ON AIR' 코너에서 '전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구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해답을 찾을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영명기자



영주시, 폭염 대비 농업인 건강·안전관리 당부

영주시는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업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여름철 농작업 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증상을 대비하기 위해 폭염 대비 준비사항으로는 집 및 작업장 가까운 병원을 확인하고 열사병 등 증상을 수시로 체크, 실내 작업장의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 및 출입문 개방, 가벼운 작업복 착용 등이 있다.

농작업을 할 경우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를 피하고, 고령 농업인과 만성질환자는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 모자를 착용해 햇볕을 피해 작업하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의식 확인 후 119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원한 장소로 이동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부채질, 시원한 물을 적서 체온을 식혀준다. 의식을 보이면 토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을 제공 하는 것이 좋다.

권영금 농촌지도과장은 “여름철 폭염에 농업인 건강을 위해 농작업 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도록 하고,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기자



사천시 장례 화장 안치 한 곳서, 사천시공설장례식장 개장

장례와 화장, 안치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사천시공설장례식장이 오는 7월 28일 개장한다.

23일 사천시에 따르면 원스톱 종합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사천시누리원(해안관광로 208-66)에 공설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천시누리원에는 기존 운영 중인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 등이 있다.

시는 약 8억원의 사업비로 사천시누리원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해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했다.

1층에는 분향실 3개소(128㎡, 116㎡, 97㎡)와 유체안치실, 염습실, 발인실, 상주 상담실, 3층에는 무연고자(감염병자용) 분향실 1개소와 음식조리실 등을 설치했다.

또, 가로등 14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227면의 넓은 주차장까지 조성했다.

시는 사천시공설장례식장 개장으로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에 따른 시간절약은 물론 시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사천시누리원에서 장례와 화장,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이용할 경우 장례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등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렴한 장례비용과 원스톱 종합장사시설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알찬 장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누리원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지난 5월 1일자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상주들이 고인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과 장비보완, 필요 물품구입은 물론 위생·친절·청렴·안전교육 등 장례식장 개장준비에 정성을 쏟아 왔다.

강영훈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여름철 식품 곰팡이독소 발생 주의하세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식품에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독소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식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며, 일부 식품에 핀 곰팡이는 데옥시니발레올, 아플라톡신, 파롤린 등의 곰팡이독소를 생성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곰팡이독소는 열에 강해 조리 후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곰팡이가 핀 부분을 잘라내도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독소가 식품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 곰팡이가 핀 식품은 통째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에 곰팡이독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급과 보관이 중요하며 빵·떡류, 면류, 즉석밥 등은 구입 전에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구입해야 한다.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보관 시 제품 포장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곡류, 견과류 등은 10~15℃ 이하의 습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고, 상처가 있거나 변색된 부분이 많은 것은 섭취하지 않기,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 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품 구입 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내에 소비하고, 냉장·냉동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합천군 쌍책면 청년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관내 방역 실시

합천군 쌍책면 청년회는 지난 23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쌍책면 관내 18개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최근 번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방역활동과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전송운 청년회장은 “생업으로 바쁜 청년회원들께서 더운 날씨에 관내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시간을 내어 함께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방역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지역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승 쌍책면장은 “지역 방역활



동에 힘 써준 쌍책면 청년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최근 번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 온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준다면 이번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산학연, 시융합 생태계 다진다

인공지능 산학연협회 출범...65개 인공지능 기술 기업·기관·단체 참여

광주지역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이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산학연협회'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산학연협회에는 대신정보통신(㈜), (주)조인트리,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 조선대 AI융합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등 지역 65개 인공지능 기술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협력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연구, 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관련 산업 전주기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인공지능산업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등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공지능산업 전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이용섭 시장, 이용빈 국회의원,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강급실 전 법무부장관, 최현택 인공지능 산학연협회장,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사, 인공지능 산학연협회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 보고, 초청강연, 소통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은 이용섭 시장, 이용빈 국회의원,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 강급실 전 법무부장관, 최현택 인공지능 산학연협회장,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사, 인공지능 산학연협회 비전 및 주요 사업계획 보고, 초청강연, 소통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소통의 장'에서는 김관구 인공지능 산학연협회 부회장 진

행으로 협회 발전방향 및 분과 협의, 청년분과 개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또 최현택 인공지능 산학연협회장은 이용섭 시장에게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해 명예회원을 수여했다. 최현택 산학연협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산학연 협회의 출범은 광주의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기업과 기관, 단체가 각자의 전문 영역을 살려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목포시 김종식 시장, 코로나 예방접종 현장 방문

김종식 목포시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방문해 근무자와 접종대상자를 격려했다.

김 시장은 22~23일 '목포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된 목포 실내체육관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회고, 목포고, 영흥고 등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 상황을 살폈다.

목포에서는 지난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돼 23일 마무리됐다.

김종식 시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 진행되는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2일 17시 현재 접종대상자 9만325명 중 8만1,580명이 동의한 가운데 1차 접종률은 88.3%, 완료 접종률은 37.9%를 기록하고 있다.

만 50~59세 장년층의 사전 예약은 대상자 2만9,571명 중 2만2,808명이 예약해 80.5%의 예약율을 보이고 있다.

김동일/기자



해남군 명현관 군수, 현안사업 완료 앞두고 현장점검 '잔결음'



명현관 해남군수는 22일 오는 8월 완료되는 주요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무더위속에서도 시급히 추진된 현장점검은 다음달 개관을 앞둔 해남 청년두드림센터와 공릉물놀이 체합 시설, 해남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운영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달 공사를 마치고, 8월 중 개관 예정인 해남청년두드림센터는 해남군 최초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연면적 308㎡, 지상2층으로 해남천 인근에 신축되고 있다. 1층은 일자리 카페 등 열린 공간으로, 2층은 사무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청년 일자리 정보제공과 상담, 청년 창업 지원 및 문화 활동 등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

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맞춤형 강좌 운영은 물론 청년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청년 외식 창업공간인 공유주방과 공유사무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도 인근에 개소하고, 해남읍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도심 일원의 청년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두드림센터가 개소하면서 청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릉 물놀이 체합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남공릉박물관 부지에 들어선다. 물놀이 슬라이드와 풀장, 바닥수 등이 시설되며,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영욱/기자

고흥군, 7월부터 결혼장려금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고흥군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원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원, 2~3회 100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830-6028)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하여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시 대출이자 50%(최대 540만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전지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 강진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이 1개월 감면된다.

강진군은 지난 5일부터 사흘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이 무너지며 총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천 39개소의 호안벽력,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5개소가 토사로 덮이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대구전은 약 1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41동, 농경지 39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15,325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이승욱 군수는 수해 피해 발생 후 발 빠른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곡성군, 휴가철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관리 강화 총력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곡성군이 8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총 5개소로 호곡나루터, 두가현 앞 세월교, 곡성청소년야영장, 압록유원지, 구)죽곡캠핑장이 대상이다. 곡성군은 총 15명의 물놀이 안전요원을 취약지역에 분산배치했다. 또한 지난해 수해로 유실된 물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특히 곡성군은 지역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안전요원들에게 구명환 던지기, 심폐소생술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교육도 진행했다.

현재 안전요원들은 담당 구역에서 순찰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군 안전 관리 담당자는 매일 취약

지역을 방문해 안전요원 활동과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더욱 강화된 순찰활동을 펼친다.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수난사고는 언

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입수,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을 금지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곳에서는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영암군, 무료 국가암검진 수검 독려

영암군보건소는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받지 않은 군민은 서둘러 암 검진을 받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사망률을 낮추고자 연중 시행되고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검진대상 암종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개 종류로, 모두 다 발병률이 높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검진기관에 예약 방문해 검진받으면 되고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확진 받은 자는 암 의료비도 지원받게 된다.

검사 주기는 △위암은 만 40세 이상·2년 주기 △간암은 만 40세 이상·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1년 주기 △유

방암은 만 40세 이상·여성 2년 주기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여성 2년 주기 △폐암은 만54~74세 고위험군 대상·2년 주기로 검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요인, 환경 및 유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므로 더욱더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며 "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에 암 검진을 하는 것"이니 아직 검진받지 못한 분들은 하루빨리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정읍시, 미래지향적 인프라 구축으로 희망찬 미래 준비!

안전, 행복, 편의 어우러진 사람 중심 정읍 만들기 박차

민선 7기 후반기를 맞고 있는 정읍시가 시대 흐름에 맞는 SOC 인프라 구축과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으로 정읍 대도약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최근 변화하는 관광의 흐름에 주목하고, 기존의 볼거리 위주의 경유형 관광지에서 사계절 체류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희망찬 정읍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산내면 매죽리 일대 구절초 테마공원에 체류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편리한 교통망 구축,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교체,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도물 공급 등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활력을 잃어버린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시 원도심 일원인 중앙로, 터미널·역세권, 조산동 3개 활성화 지역에 2023년까지 총 882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반한 도시재생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 자생력 확보로 전북 서남권 상생 경제의 중심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100선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구절초 테마공원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구절초 테마공원 내에 사업비 41억원을 들여 109m의 출렁다리를 준공,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망경대 계곡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구절초 공원의 전체 산책코스를 연결하며 밤에는 LED 조명을 활용한 은하수가 내리는 낭만적인 연출로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공법을 활용한 썰라인과 캠핑장이 구축된 사계절 공원을 조성해 본격적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 체류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 소득 창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기동 당현마을에서 종합경기장까지 940m 구간에 총사업비 90억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종합경기장까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활한 교통망은 조성해 본거적인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켜 체류시간 연장에 따른 지역 소득 창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내장호 제방 하단으로 360m 구간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한 내장산 문화광장 대체도로는 오는 8월 2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내장산 문화광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구간도 하나둘 해결하며 교통의 질을 높이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총 24개소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 교차로에 비교해 유지관리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사고빈도가 낮아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차량 정체시간 감소로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배출이 등 경제성, 환경적으로 여러 장점이 있어 올 하반기에도 4개소(고부주산, 상동회관 앞, 신정교차로, 1산단 삼거리 등)에 대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내 주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불법 주차와 이에 따른 차량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심 내 불법 주차차 해소 위해 새암로 일원에 42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성동 구미마을에 183면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했다.

시는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읍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 주변의 칠보 원촌마을과 동편마을이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칠보 원촌마을은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전라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붕보수와 담장 정비, 안길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편마을은 농촌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중앙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4월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마을 공동창고 신축과 가로등 정비, 빈집정비, 노후주택 기능보강, 담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문화가 잘 보전된 무성서원과 마을이 서로 공존하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폭염 긴급 대응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안전국장 총괄 아래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16명 3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책 TF팀'을 운영해 폭염 상황 관리체

를 구축하고 비상 연락체계 유지에 들어간다.

또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7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한다. 지역 내 주민센터와 경로당, 급유기관 등 냉방시설이 구축된 실내 무더위쉼터 34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양우산 대여소 7개소를 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또한 재난재해 문자와 재해예경보 시스템,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폭염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이 상수도 수질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여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246억원을 투자해 중점관리지역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수도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총사업비 43억원의 스마트 하수처리장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하수처리의 전 과정에 대해 ICT 기반의 스마트 계측기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함께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하은기자

익산시, "우리 아기 탄생 축하 나무심어요"

익산시가 소중한 아기 탄생을 기념하며 지구에 나무를 심는다.

익산시는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내 4천 평방미터에 익산시민 탄생기념 아가수를 조성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미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기부금 1억 5천만원을 활용한 것이다.

익산시민 탄생기념 아가수에 식재된 수목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인 신생아(6월 말 현재 익산에 태어난 출생아는 562명)에게 분양 수목 소진 시까지 신청에 따라 선착순으로 무료 분양한

다.

'아가수'는 장수와 지혜를 상징하는 거북 모양을 형상화하여 팔배나무 등 4종 610주를 식재하여 분양된 탄생기념 수목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꾸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익산시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아가수가 나눔의 따뜻한 공간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익산시민 탄생 기념 "아가수"수목 신청

"익산시 신생아와 명품 도시숲의 특별한 만남"

익산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가수"를 조성하고 수목을 분양 신청 받습니다.

신청대상 익산에 주민등록 주소가 둔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신생아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신청처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홈페이지 (www.greeniksan.or.kr) 신청

신청기간 01 수목 분양 접견도 확인 02 분양 신청서 작성 03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도 붙임 후 발송 04 신청결과 확인 05 아가수 분양 착수에 부속된 표지판 확인 (수: 010-4288-1906)

추가서비스

- 나무심기** 100여 명이 모여 도심 내의 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 나무심기** 100여 명이 모여 도심 내의 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 나무심기** 100여 명이 모여 도심 내의 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 나무심기** 100여 명이 모여 도심 내의 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 나무심기** 100여 명이 모여 도심 내의 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익산시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완주에서 공동체로 만나 문화로 소통해요

공동체 문화도시 네트워킹 사업 '밋업인 완주' 참여 공동체 모집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문윤걸)가 공동체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밋업인 완주'를 상설운영 및 지원한다고 22일 전했다.

'밋업인 완주'는 공동체들의 협업, 협력, 동반성장 등을 주제로 자유로운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공동체와 공동체 또는 공동체와 문화활동가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파티, 워크숍, 세미나, 등 완주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공동체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밋업인 완주'는 지난 2년 동안

안 지역 곳곳의 100여개 문화공동체가 참여, 30여회의 네트워킹 활동이 진행되었다. 자유로운 소통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 기회를 경험하며 참여공동체들의 호응을 이끈 바 있다.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문윤걸 센터장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소통환경을 구축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더하고 나누며 지역 내 굳건한 공동체 네트워킹 모델 형성을 통한 문화적인 삶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밋업인 완주'에서 제안된 활동은 문화공동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두모이다'를 통해 확장 가능하다.

김광수기자

문화공동체 네트워킹

밋업인 완주

2021.7.22(목) ~ 상설운영

- [지원대상]** 완주 문화공동체 및 예비 문화공동체
- [지원내용]** 공동체 간 협업, 협력의 목적이 있는 네트워킹 활동지원
- [신청방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wanjuculture.com) [문의전화] 063-291-5599
- [QR코드]** 공동체로 만나 문화로 소통해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남원시, 2022년도 과수·특작산업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

농가의견 반영하여 총 18개 사업 수요조사 착수

남원시는 농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7월 13일부터 2022년도 과수·특작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과수·특작 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지원사업 외의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포함하여 총 18개 사업을 수요 조사 중이다.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과수(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및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분야로 과종별 생산단지화 과수 농기계(SS기, 고소작업차 등), 지역특화품목 명품 복숭아 비닐하우스, 신소득 약용작물 육성지원

사업과 매년 발생하는 이상저온 예방을 위한 약제를 지원하는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남원시 기후 특성에 적합한 대체작물을 발굴 육성하고자 작목반과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남원시의 새로운 대체작물로 아열대 작물인 망가주 재배 의향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집합 교육이나 설명회를 통한 수요조사 대신 정확한 투명한 수요조사 위해 읍면동 이장회의와 작목반 간담회를 통한 홍보와 작목반별 회원에게 SNS, 문자발송 등을 통해 해당 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2022년도 과수·특작분야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이용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과수·특작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과수특작 농가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고창군, 주요도로변 가로수 칙닝쿨 제거 추진

고창군이 여름철 도로변 가로수의 생육 및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칙닝쿨 제거 작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칙닝쿨 제거 작업은 녹지관리 근로자 6명을 투입해 통행량이 많은 국지도 15호선 명품 소나무길을 시작으로 가로수가 식재된 관내 주요도로변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칙닝쿨은 도로변 가로수의 성장을 방해하고 가드레일과 도로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가려 교통사고 발생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고창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칙닝쿨이 식물생태계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칙 제거 중인 도로변을 운행시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서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곽승오기자

괴산군, 미래농업을 위한 청사진 그려

충북 괴산군이 미래농업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농업분야 예산 1천억 시대를 맞이한 괴산군은 유기농업 확대, 농산물 경쟁력 강화, 농업의 스마트화, 농산물 유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농업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실시하여 매년 친환경 인증면적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국제 유기농교류의 중심으로서 괴산군은 유기농의 공익적 가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에 열리는 2022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K-유기농을 세계화하고 대한민국 그린오션의 중심에서 유기농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괴산군은 최근 2021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친환경유기농업도시' 부문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군은 농부들의 순수한 땀과 열정이 담긴 농업이라는 뜻을 담은 '순정농업'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올바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하여 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괴산 순정농부'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괴산의 농·특산물이 명품 브랜드로 각인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노지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위해 초고속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군은 작년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는 등 유통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공공·학교급식의 종합컨트롤타워

스마트화에도 나선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노지에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위해 초고속 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군은 작년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는 등 유통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공공·학교급식의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급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순정농부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괴산장터 및 모바일앱, 농식품 수출상담회 등 농산물 판매와 다양한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관내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하는 미래식품산업 연구센터 등 농산물 제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유기농업 확대, 순정농업 브랜드 강화, 농업의 첨단화, 유통확대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미래 농업 환경에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괴산군의 농업경쟁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홍성군, 총령사 일제수목 '썩둑'...일제잔재 청산 '앞장'

충청의 고장 홍성군이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총령사 사당 내 일제수목 '가이즈카 향나무'를 모두 제거했다.

'가이즈카 향나무'는 일제 식민정책의 하나로 행정관청과 학교 등에 집중적으로 심어져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군은 홍성지역의 보훈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1978년 건립된 '총령사'에 '가이즈카 향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역사성과 민족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라 7그룹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총령사'내 일제수목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역사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충절의 고장 홍성군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현충사의 배수시설 점검과 퇴적물 정리, 제조작업, 공중 화장실 점검 등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원호/기자



아산시 도고면, (사)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도고면 분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아산시 도고면은 22일 (사)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도고면 분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위촉된 노인회 임원 및 각 마을의 노인회장 36명은 복지 사각지대 놓인 마을주민을 도고면에 알려 공적지원 및 후원 연계를 받도록 협조한다.

도고면은 도고면 분회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교육, 노노케어 활동 등

을 지원한다.

윤형로 분회장은 "우리 마을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이 없도록 우리 회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써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경 면장은 "마을을 제일 잘 아는 큰어르신들이 어려운 분을 찾고, 돕는데 동참해주시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민관이 마을을 모아 서로 협력하여 행복한 도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동해해양경찰서 이천식 서장, 취임 후 첫 치안현장 점검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치안현장 방문

동해해양경찰서 이천식 서장은 취임 후, 관할해역 파악 및 해상치안 현장점검을 위해 대형함정과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실태는 물론 긴급출동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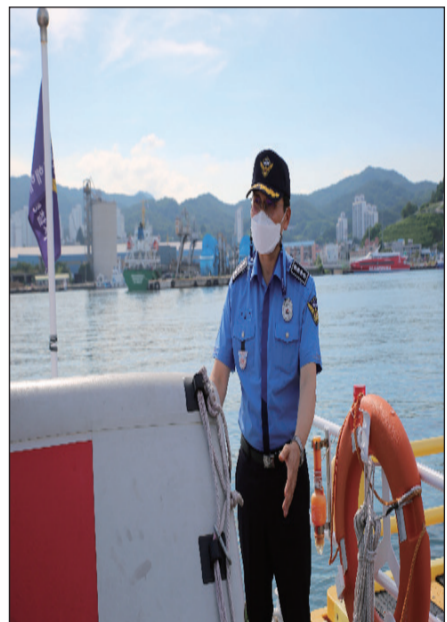
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치안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장 취임 후 다음 날인 16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묵호항 전용부두에 정박 대기 중인 대형함정과 관내 파출소를 방문했으며, 현장상황과 일정을 고려해 오는 27일까지 치안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실태 확인 ▲여름 성수기 긴급상황 대비·대응태세 점검 ▲불법조업 외국어선 경비강화 ▲연안해역 안전관리 실태 ▲구조장비 및 시설물 등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직원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이 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해양주권 수호와 안전하고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



철원DMZ마켓 일시(7. 24~8. 1) 중단 안내!



철원군은 농업인들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자 관광지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의 농촌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을 해온 철원DMZ마켓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쉬어가기로 했다.

연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도권은 물론 지역에서의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방역상황이 엄중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철원DMZ마켓의 보호를 위해 철원군과 철원DMZ마켓 회원들의 협의 하에 결정하게 되었다.

한편, 철원DMZ마켓은 100여명

의 농업인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지난 3월 27일에 시작, 매주 토, 일요일 정기적으로 열려 철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는 물론 관광 지속 문화공간으로 철원군 방문객 및 철원군민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등 지역 활력화에 기여해 왔다.

이에 흥원동 농업유통과장은 "모두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지금철원DMZ마켓 잠시 중단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참여 농업인들의 휴식시간을 갖고, 8월에 더 활기찬 철원DMZ마켓을 열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서천군, 농어촌도시형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 등 착수보고회 개최

서천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군의원, 부시장,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도시형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원도심 쇠퇴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에 따라 지역의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의 발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 지역인 서천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력 있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향후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재생 권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

략계획 변경 및 인정사업계획 수립 착수를 함께 보고해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노박래 군수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민간전문가 참여, 주민의견 수렴, 관련부처 연계사업 등을 통한 사업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협약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도시 서천을 만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부여 중앙로 5번길 소원등 점등행사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중앙로 5번길 상인회와 함께 지난 19일 소원등 설치 및 점등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등행사는 5월부터 재단과 중앙로 5번길 상가번영회가 기획했으며, 재단에서 추진하는 상인조직 자율희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상가번영회 회원의 소원을 담은 백제의 등의 디자인은 상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작됐다.

이번 행사는 상인뿐 아니라 5번길의 건물주들도 참여해 상생하여 골목경제를 회복하고 다시 번성할 수 있다는 확신의 의미를 담았다.

김원호/기자

강원도일자리재단 E-JOB studio의 첫 번째 직무교육!

강원도와 (재)강원도일자리재단은 7월22일~23일 이틀에 걸쳐 재단 내 E-JOB studio에서 18개 시군 강원형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본교육 '2021 강원청년 드림 ON 캠프'를 실시했다.

'2021 강원청년 드림 ON 캠프'는 강원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과 도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소한 재단 E-JOB studio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재직자 직무교육이며, 이를 기념하여 열린 스튜디오 개소식과 일자리 간담회에는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이 참석하여 도내 청년재직자 200명과 함께 강원도 일자리정책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재단은 워라밸 사진공모전

투표 심사 및 유튜브 구독이벤트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킹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후속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홍보한 지 20분 만에 모집인원이 마감되는 등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비대면 시대 속 일자리재단의 고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E-JOB studio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수요에 맞는 교육 강좌 및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정책진 오산시 홍보담당관, 참일꾼상 지방행정부문 수상



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강화 및 시민과의 소통 증진 노력 인정 받아

정책진 오산시 홍보담당관이 지난 20일 제9회 기호참일꾼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호참일꾼상은 기호일보사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인천·경기지역 기초단체장과 행정, 교육, 경찰, 소방,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참일꾼을 발굴해 선정하고, 이를 기리는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분사 시상식은 생략하고 수상자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전수했다. 정책진 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시 주요 정책에 대

해 다양한 언론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속한 보도와 홍보를 추진했고, 보도자료 작성 교육과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정책진 담당관은 수상 소감으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과 술선수범해 팀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후배님들 덕분에 제가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오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농사지어 번 돈, 해남인재 키우는데 보태니 더 보람'



농사지어 얻은 수익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으로 쾌척한 노부부의 사연이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산이면 외송리 임현수·김두옥 부부는 19일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부부가 마련한 기금은 밤호박과 감자 농사에서 나온 수익.

평소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부부는 최근 해남군의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는 아이들을 다 키워서 나는 장학기금 덕 불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해남의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게 장학기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게 됐

다"며 "500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십시일반 힘을 모으면 한결 쉬운 일이 되지 않겠나"고 뜻을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4월부터 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현수씨 부부는 개인 기탁자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레스트수목원을 시작으로 해남 고구마빵피남시에, (주)다복, (주)원광전력 등 관내 기업에서 수익의 일부를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재서귀포시해남향우회·이레가족약품 등 지역향우들이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명현관 해남군수가 재임기간 급여 전액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양영욱기자

경주 '천년에', 황남동 소외계층 위해 300만원 기탁하며 사랑을 함께 전달하다

경주시 소재 천년에(대표 김경인)에서 21일 황남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태익)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천년에는 국내산 보리와 팔소로 찰보리빵과 찰보리떡, 경주빵을 만들어 고객만족 대상을 다수 수상한 바 있는 명과업체로서, 제품생산에 대한 정성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소외이웃을 위해 연탄을 기부해준 선한업체다.

김경인 천년에 대표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욱더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태익 황남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천년에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하동 박주아 선수, 여자야구 국가대표 재발탁

하동군체육회, 지난해 투수·유격수 최연소 선발 이어 올해 선발전서도 뽑혀



하동 진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천재 야구소녀 박주아(18) 학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자야구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동군체육회는 박주아 선수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드림파크야구장에서 치러진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발전에 앞서 같은 달 5~6일 양일간 한국여자야구 상비군 선발전에서 60명이 지원해 그 중 38명을 선발하고, 이후 38명의 상비군에 대한 테스트 결과 박주아 선수를 포함해 24명이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박주아 선수는 지난해에도 63명의

상비군 중 20명만 최종 선발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투수와 유격수 포지션의 여자야구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박주아 선수는 하동의 사회인야구단 어쭈구리야구단 단원인 부친 박용완(하동군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 씨를 따라 2019년부터 어쭈구리 야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연습과 각종 야구대회를 참가하며 견문을 넓히는 등 선수로서의 자질을 굳건히 키워왔다.

한편, 2021년 여자야구 국가대표 소집 훈련은 내달 7일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주말에 20여 회 정도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FC안양, 허욱 신임 사무국장 선임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허욱 사무국장을 선임했다.

FC안양은 7월 22일 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사무국장 임용식을 통해 허욱 사무국장을 구단의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조성락 전 사무국장의 후임인 허욱 사무국장은 안양시 총무과를 포함해 다양한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행정 분야의 베테랑이다.

허욱 사무국장은 "FC안양의 오랜 팬으로서 구단에서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다. FC안양의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는데, 올해 FC안양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사무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FC안양 장철현 단장은 "행정 분야 전문가인 허욱 사무국장이 오셔서 구단 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해 1부리그 승격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FC안양이 되겠다"고 전했다.

원준균기자



김제시, 금산사 조실 월주 큰스님 입적

월주큰스님은 한평생 사회복지, 사회개혁, 남북평화에 헌신한 불교계의 큰 별



금산사의 조실큰스님이자 조계종총무원장을 두차례나 역임했던 월주큰스님이 법랍 67세, 세수 87세로 22일 입적했다.

월주스님은 1935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중학교에 다니다 한국전쟁 발발로 중퇴하고 낙향했으며, 정읍농고 2학년에 재학중 깨달음을 얻기위해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또한 월주스님은 금산사, 개운사, 영화사 주지를 지냈으며, 불교 평화운동에 앞장선 종단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남아있다. 또한 1994년 제2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 노동, 인권, 복지, 환경, 통일사업들 현대사회가 직면한 제 문제에 대한 자비행을 펼쳐온 불교계의 큰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장례절차는 평소 큰스님께서 코로나극복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만큼, 영화사, 조계사, 봉은사 등 12개소에 나누어 분향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영결식 및 다비식은 오는 26일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할 예정이다.

김현태기자

가수·박군 팬 클럽·울산교육청에 장학금 전달

울주군 소재 초·중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309만원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2일 박군 팬클럽('안고독한박군x박군여단')으로부터 장학금 309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김국화 팬클럽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군은 평소 "유년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가수라는 꿈을 이루게 되어 도움받은 고향의 어려운 학생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감동받은 두 팬클럽이 연합하

여, 첫 기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박군 생일(3월9일)을 기념으로 모금한 309만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김국화 팬클럽 회장은 "고향의 학생들을 돕고 싶다는 박군의 소원대로 첫 기부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도 박군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는 참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용인시 (주)아시아디벨로퍼, 상갈동에 라면 100박스 기탁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주)아시아디벨로퍼(회장 정바울)가 관내 저소득층에 전해달라며 라면 100박스(223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은 이날 기탁받은 라면을 홀로어르신,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중인 (주)아시아디벨로퍼는 앞서 지난해에도 시에 1억43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0만 장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바울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공평도시유적전시관, '화신백화점_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기획전

기획전 연계 시민공모 성과를 함께 전시, 관람은 사전예약관람제로 운영(일 3회)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7월 23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종로의 랜드마크였던 화신백화점을 조명한 '화신백화점_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화신백화점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앞에 있던 백화점으로, 지금의 종로타워 자리에 위치했다. 1931년부터 종로에 자리 잡았던 화신백화점은 1937년 현 종로타워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신관新館을 건축하였다.

이번 전시는 화신백화점을 비롯한 경성의 5대 백화점들의 사진, 백화점의 판매 물품과 각종 포스터, 판매 카탈로그 등 총 50여건의 전시자료를 통해 화신의 변천사를 조명한다. 전시 구성은 '1부. 지금은 백화점 전성시대', '2부. 1937년, 화신의 새로운 탄생', '3부. 저물어가는 화신의 시대' 등 크게 3개의 섹션과 시민참여 공간인 '지금은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를 기억하며'로 나뉜다.

1930년대 경성에는 무려 5개의 백화점이 있었다. 허다다, 미나카이, 조지야, 미즈코시, 그리고 화신이 그것이었다. 백화점 시대의 시작은 일본의 오복점吳服店[포복점]들이 대형 백화점으로 변화하며 시작되었다. 일본계 백화점 4곳이 남촌[현재의 중무로 및 명동 인근]에 위치했다면, 북촌에는 최남에 의해 건립된 동아백화점, 신태하의 화신상회를 인수한 박흥식의 화신상회가 있었다. 그러나 화신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며 민족계 백화점의 타이틀은 화신이 갖게 되었다.

1937년은 화신의 역사 상, 기념비적인 해였다. 1935년 화신의 동관과

서관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래, 화신은 동관을 1층 더 증축하고 신관의 건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11월, 종로 네거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화신의 신관이 우뚝 섰다.

화신은 단지 대형 건축물이 아니었다. 백화점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네온사인', '육상정원' 등 당시 최신 문화의 기호가 가득 차 있었다. 백화점의 상품들은 '모던'이라는 이름하에 포장된 유행품들이었다.

화신은 경성사람들뿐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찾는 종로의 랜드마크였다. 백화점 자체가 종로의 상권을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하나의 명소가 된 것이다. 한편 화신은 여러 방법으로 고객들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것은 '민족 마케팅'이었다. '민족 유일의 백화점'이라는 수사는 치열한 백화점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화신과 화신의 사장 박흥식은 주류 기업, 재계 인사로서 식민지배 체제와 총독부의 정책에, 때에 따라 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민족의 백화점'이라는 통칭은 생각보다 더 많은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해방이 다가올 무렵, 경성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화신 역시 생필품 판매에 주력하거나 전쟁 홍보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전시상황에 부응하였고, 나중에는 비행기 제조회사까지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일제에 협력한 일로 박흥식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체포 제 1호'로 검거되기도 하였다.

화신의 전성기는 빠르게 지나가

고 있었다. 1955년에는 신신백화점을 설립하고, 6.25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화신 건물을 복구하여 백화점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려 했던 화신의 노력은 최신 시설을 갖춘 백화점들의 등장으로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결국 화신백화점 건물은 1967년 1987년 3월 14일 화신백화점 건물 [신관]이 헐리기 시작했다. 1937년 신관이 문을 연지 50년 만의 일이었다. 반세기 가량 종로의 상징이었던 화신은 도시재개발 및 종로확장계획으로 인해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현재는 그 자리에 종로타워가 들어서 있다. 화신이 사라졌어도 그 장소성은 그대로이다. 육의전의 으뜸이었던 선전 廳, 종로 상권을 선도했던 화신, 마지막으로 현재 종로의 중심인 종로타워. 건물은 사라졌어도 장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여전히 계속된다.

화신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또한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화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화신을 기억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화신은 여전히 종로의 랜드마크다.

이번 기획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연도 마련하였다. 강연은 9월 3일과 9월 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코

로나19로 온라인 강좌도 병행할 예정이다. 화신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백화점들을 주제로 당시 사람들에게 백화점들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 접수는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최광수/기자



2021년 거제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 비대면 온라인 진행 및 미디어 크리에이터 자격증 부여

거제시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1일 '거제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 캠프 수업'을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제 청년 미디어 아카데미'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자 개설됐으며 미디어 공통과정, 미디어 커머스, 심화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거제 청년 40명(4기수, 기수별 10명)이 오는 10월까지 총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1·2기 수강생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 크리에이터 공통과정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은 콘텐츠 기획, 영상촬영, 영상편집, 저작권 등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청년 니즈를 반영한 내용으로 딱딱한 이론수업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위탁교육기관은 ㈜스마트크리에이터로 혁신 ICT 기업선정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특허 9건을 보유

한 업체이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1~4기 수강생 40여 명이 함께해 1·2기 선배 수강생들이 제작한 영상을 3·4기 신규 수강생들이 공유하고, 전문가 컨설팅,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이후 비대면 수업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학습 영상을 수강생에게 제공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특전으로 민간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정책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많은 청년들이 이번 미디어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대단하다"며 "청년들이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끝까지 잘 이수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거제의 아름다움과 개인 일상을 기록하고 담은 참신한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의령예술촌 2021 여름낭만전, 7월 24일부터 금빛사상미술협회 회원 초대전



사단법인 의령예술촌은 7월 24일부터 여름낭만전을 개최한다. 매년 여름에 개최하는 여름낭만전은 11대 기획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과 함께 의령을 찾는 향우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사함으로써 새로운 종전의 기운을 얻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작품전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개최한다. 우선 1차 전시는 부산에서 활

동하는 금빛사상미술협회 회원 초대 작품전으로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 9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 네 개의 전시실에서 한국화 작품을 비롯해 서양화 작품과 서각, 공예 작품 등을 선보인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금빛사상미술협회 배기현 회장을 비롯해 권의경 작가와 김영희 작가 등 모두 5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52점을 선보인다.

최광용/기자

광주광역시, '2021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개최

27일~8월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남북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21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약속'이 오는 27일부터 8월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 남구,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과 우정을 담은 전시회다.

전시 작품은 북측 작가 3명을 포함한 15개팀 19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2~5m 크기의 회화 17점을 비롯해 설치 미술품 3점, 사진·미디어 작품 20점, 남북 정상간 주고받은 선물 및 선언문 28점 등을 ▲백두산과 한라산과의 만남 ▲우정 ▲약속 아카데미 ▲먼저 온 미래 등 4개 섹션으로 구성하고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백두산과 한라산의 만남'에서는 백두산과 천지를 그린 강헌영, 정현일, 박동걸 평양미술대 교수들의 작품 10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간 합의의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남북간 화해와 단합, 우정 등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람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진주시, 진주실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다!

진주바느질협동조합 창립 1주년 기념전_가치집다展

진주바느질협동조합에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바느질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100년 진주실크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바느질 종사자의 정성어린 바느질의 가치를 높이고자 2020년 창립된 진주바느질협동조합은 창립1주년 기념전 [가치집다展]을 선보인다. 2021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주시청 갤러리 진심 1949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한복부문

에서 2020년에 이어 연속 금상을 수상한 임박은 이사장은 '바느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진주바느질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전시의 포부를 밝혔다.

전시에는 4월 대한민국 한복주간에서 영상으로 선보인 패션 한복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고, 진주실크로 만든 다양한 소품과 실크보자기의 화려한 어우러짐으로 초대한다.

최광용/기자



철원군, DMZ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기도 'PLZ 페스티벌 음악회'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열리는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인 'PLZ페스티벌(예술감독 임미정)'이 7월 24일 비대면 공연으로 변경 진행된다.

PLZ(Peace & Life Zone) 페스티벌은 DMZ를 평화와 생태의 지대로 새롭게 인식시키기 위한 평화문화운동으로, 2018년 시작된 국제문화행사다. 이번 철원지역에서 개최된 PLZ오프닝 음악회는 '평화의 기도'라는 주제로 피아니스트 임미정, 반도네오니스트 제이피 요프리, 2021년 체코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현악사중주 아레테 파르랫, 바이올리니스트 성경주와 앙상

블 더 브릿지의 클래식 음악 연주로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선율을 선사하고자 한다.

당초 DMZ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널리 알리고자 주한 12개국 외교 대사들을 초청하여 관내 도피안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공연장소를 관내 등록 공연장인 화강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연 라이브 영상은 유튜브'강원문화TV'를 통해 7월24일 오후3시부터 라이브 방송하며, 관련 PLZ 영상은

별도로 촬영·편집하여 향후 철원군 공식 SNS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동원/기자



영화 '곡성' 주연 곽도원, 'CCTV'로 돌아오다!

곽도원이 선택한 두 편의 공포 영화 화제

공포영화의 시즌인 7월에 개봉한 영화 'CCTV'는 CCTV를 옮겨 다니는 혼령의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여름을 맞아 공포영화를 기다리던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했던 영화 '곡성'. 귀엽고 사랑스런 딸을 지키려고 애쓰며, 순박한 경찰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배우 곽도원이 올 여름 다시 공포영화로 돌아왔다.

영화 '곡성'은 배우들이 꿈은 천재 감독, 호칭이 따라붙는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다. 귀신이 곽할 영화 '곡성'이라며, 동음이의어인 곡성(哭聲)과 곡성(谷城)을 일그러 혼동하게 사용한 작명 센스가 돋보이는 작품명이 화제였다.

게다가 순박한 시골마을에서 벌어지는 초월적인 공포를 사머니즘적으로 해결하려던 경찰아빠도 곽도원 배우가 열연했었다.

죽음을 부르는 눈동자, CCTV의 공포가 드러난다. 영화 'CCTV'는 어디에나 있는 CCTV가 공포의 화두가 되고, CCTV를 옮겨 다니는 혼령의

복수를 그린 김홍의 감독의 작품이다.

실제 의문사가 발생했던 곳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김홍의 감독이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이후 영화의 촬영을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곽도원 배우가 뒤통수를 무려 9바늘을 꿰매야 하는 부상도 발생했고, 추가 촬영 2일 전 김홍의 감독이 대형교통 사고를 당해 18개월 동안 병영 입원을 해야 했던 속사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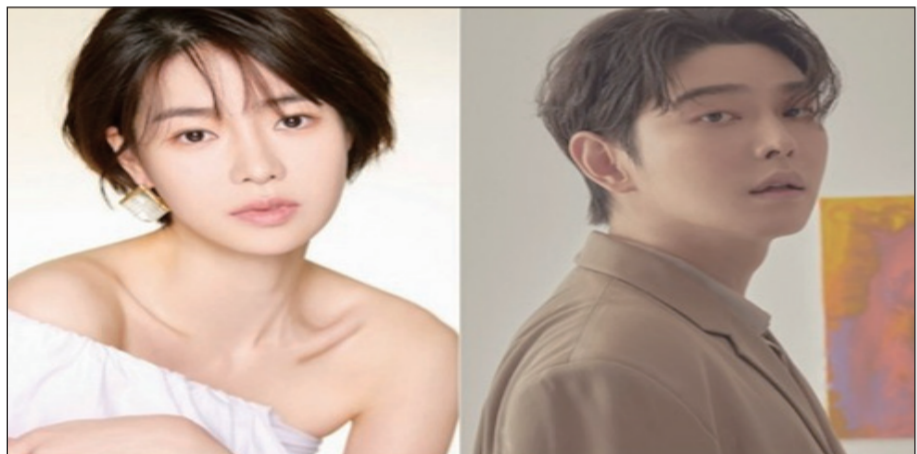
공포영화를 찍다가 발생했던 기이한 사건들로 영화가 완성될 수 없을 뻔 했다가, 영화 'CCTV' 제작을 통한 재황에 성공한 김홍의 감독은 2010년 영화 '히어로'로 데뷔했다. 그 영화에도 곽도원 배우와 출연했고, 테크니컬의 나태주 배우가 참여하기도 했다.

올 여름 관객들에게 공포의 서늘한 한기를 느끼게 할 영화 'CCTV'가 기대되는 이유다.

전순희기자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 극장의 서스펜스!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 임지연, 윤균상이 일상에 파고드는 현실적인 공포로 돌아온다.

2022년 상반기 공개되는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은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라진 언니의 진실을 찾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평범한 겉모습 뒤에 탐욕스러운 속내를 숨기고 사는 수상한 이웃들,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비밀들이 극한의 현실 공포와 강렬한 서스펜스를 선사한다.

영화계에서 내로라하는 제작진의 의기투합은 완성도를 담보한다. 영화 '고사:괴의 중간고사' '표적' '계춘할망' 등에서 탁월한 영상미와 감각적인 연출의 힘을 보여준 장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 '총지 아니한가' '남자가 사랑할 때' '반드시 잡는다' 등을 통해 호평 받은 유갑열 작가가

집필을 맡아 치밀한 미스터리 스릴러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여기에 서스펜스를 극대화할 임지연, 윤균상의 흥미로운 조합은 드라마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한다.

임지연은 언니의 실종을 추적하는 호텔 계약직 직원 '지나'로 변신한다. 아쉬울 것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듯 하지만 내면엔 웬지 모를 열등감으로 가득한 인물. 언니 지현의 실종 소식이 본가인 장미맨션으로 돌아온 혼란에 휩싸인다.

임지연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수상한 이웃들, 이제는 위험한 곳이 되어 버린 장미맨션에서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지나의 불안과 공포, 집념을 내밀하게 그려낸다.

윤균상의 변신에도 기대가 쏠린다. 윤균상이 연기하는 강력계 형

사 '민수'는 지나의 말을 믿어주는 유일한 조력자다.

한 번 쏜 한 사건은 끝장을 봐야 하는 집요한 행동파로 지나를 도와 지현의 실종 사건을 파헤친다. 누구나 기대고 싶은 나무 같은 남자지만, 그 역시 남모름 어둠을 갖고 있다.

'육룡이 나르샤'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미스터 기간제'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변신을 거듭해 온 윤균상이 이번 작품을 통해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을 완성할지 기다려진다.

'더 맨션' 제작진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공간 아파트를 무대로 인간 군상의 이면에 숨겨진 탐욕과 비밀,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평범한 일상에 파고드는 현실적인 공포가 강렬한 서스펜스를 자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빙 측은 "민고 보는 제작진과 배우들이 의기투합한 만큼, 완성도 높은 미스터리 스릴러를 기대해도 좋다"라고 전했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더 맨션'은 콘텐츠 제작 명가 JTBC스튜디오를 비롯해 영화 '악의 연대기' '범죄도시 2' '악인전'을 만든 ㈜비에이엔터테인먼트와 영화 '완벽한 타인' 드라마 '트랩'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윌웬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며, 2022년 상반기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현우주기자

'미스트롯2' 별사랑X은가는 '올림 트로트 라이브' 무대 동반 출격



'미스트롯2' 별사랑, 은가는이 BTN라디오 '올림 LIVE'에 출격해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매력을 뽐낸다.

별사랑, 은가는은 오는 26일 밤 9시 BTN라디오 유튜브 채널 및 올림 앱에서 진행되는 두번째 랜선 콘서트 '올림 LIVE-올트라(올림 트로트 라이브)'에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진행되는 BTN라디오 '은가의의 티키타카' DJ를 맡고 있는 은가는은 '올트라'에서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시원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은가는이 라디오 진행을 통해 독보적인 예능감과 대체 불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무대를 통해서도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인 보컬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별사랑의 별 하나 사랑 둘'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는 별사랑도 '올트라' 무대에서 폭넓은 음역대와 톡톡 튀는 매력을 펼치기 위해 준비 중이다.

DJ 활동을 통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한 별사랑은 팬들을 위한 특별한 라이브 무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이미테이션' 정지소-이준영-박지연-윤호, 캐릭터별 '심쿰 명장면' BEST!

KBS2 '이미테이션' 정지소, 이준영, 박지연, 윤호가 매회 한계없는 매력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에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KBS 2TV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감독 한현희/작가 김민정, 최선영/제작 히든시퀀스/기획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BS)은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헌정서. 내일(23일) 종영을 앞둔 가운데 마하(정지소 분), 권력(이준영 분), 라리마(박지연 분), 유진(윤호 분)이 시청자들을 심쿰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을 짚어봤다.

#권력_무한진진 (5화)

권력은 마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자마자 저절적으로 직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마하에게 폭 빠진 권력은 스스로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해왔지만 날이 갈수록 권력의 머릿속은 마하로 가득 찼다. 결국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한 권력은 마하가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녀에게 한달음에 달려갔다. 특히 그동안 보여왔던 시크한 면모 대신 마하를 향해 짓는 권력의 밝은 미소가 마하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심쿰하게 만들었다.

#마하_눈물고백 (7화)

마하는 애써 밀어내던 권력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며 눈물로 고백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인 아이돌 마하는 자신을 좋아한다며 다가오는 권력을 애써 외면했지만 그가 드라마 촬영 중 사고를 당하자 충격을 받았다. 이후 권력의 병문안을 간 마하는 그의 축 처진 모습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오열했고 7년 전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은 마하의 고백이 시청자들을 엄마 미소 짓게 만들었다.

#유진_완벽남사친 (7화)

유진은 마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보다 마하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짝사랑을 정리했다. 유진은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하를 일편단심 좋아해 왔고 마하와 관계가 돈독한 권력을 견제했다. 하지만 유진은 권력을 좋아하는 마하의 마음을 눈치챈 뒤 그녀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진은 권력에게 "마하를 좋아했었다. 마하 곁에 친구로 오래 남겠다"며 귀엽게 도발해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다.

#라리마_강강약약 (10화)

라리마는 강강약약의 정석을 보여준 걸크러시로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다. 라리마는 소속사가 자신을 조건으로 삭스 소속사와 인수합병한 뒤 연습생들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후 소속사 대표를 찾아간 라리마는 "나 혼자 고고하게 동지 못 옮겨"라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티파티' 소속사 대표 지학(테니안 분)에게 연습생들을 받아주는 조건을 걸고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깊은 면모로 '라리마가 왜 완벽한 톱아이돌일 수밖에 없는지' 보여줬다.

이처럼 '이미테이션'은 각 캐릭터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남은 최종화에서는 이들이 어떤 명장면을 탄생시킬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한편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8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4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한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삭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아이돌 세계를 더욱 흥미롭고 탄탄하게 그려내며 '원픽 뮤직 드라마'로 손꼽히고 있다.

KBS2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최종화는 내일(23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영화 '싱크홀', 극과 극 케미 스틸 공개

8월 11일 개봉을 앞둔 올여름 단 하나의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반전 케미가 돋보이는 '극과 극 케미' 스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극과 극 케미' 스틸에는 청운빌라의 주민 '만수'(차승원)와 '동원'(김성균)의 순탄치 않은 첫 만남이 담겨 있다.

11년 만에 자가 취득하여 서울로 이사 온 '동원'은 밤낮으로 쓰리잡을 뛰는 '만수'와 의도치 않게 계속 마주친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치던 둘은 갑자기 발

생한 싱크홀로 인해 함께 추락하게 된다.

한편, '극과 극 케미' 스틸 속 '김대리'(이광수)와 3개월차 인턴 사원 '은주'(김혜준)의 '원동료' 모먼트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 '김대리'와 '은주'는 직장 상사 '동원'의 집들이에 왔다가 빌라 한 동과 함께 싱크홀 아래로 추락한다.

회사에서는 팀워크보다는 월급으로 묶여있는 직장 동료였으나 지하 500m에서는 싱크홀을 빠져나가기 위해 진정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최재은/기자



새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 오승아, 욕망의 팜프파탈!

MBC '두 번째 남편' 오승아의 첫 스틸이 공개됐다. 강렬한 욕망을 품은 팜프파탈로 분한 그의 활약에 기대가 증폭된다.

오는 8월 9일 저녁 7시 5분에 첫 방송하는 새 일일드라마 MBC '두 번째 남편'은 빼앗긴 자와 빼앗은 자의 피할 수 없는 대립!

처절한 복수와 응징으로 점철된 두 여자의 드라마. '최고의 연인', '빛나는 로맨스' 등을 집필한 서현주 작가가 대본을 맡은 가운데 엄현경, 차서원, 오승아, 한기웅의 출연으로 기대지수를 높이고 있다.

오승아는 극중 윤재민(차서원 분)의 이복동생이자 문상혁(한기웅 분)의 새로운 사랑 '윤재경' 역을 맡았다.

윤재경은 이복 오빠 재민을 제치고 대국그룹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위해 어떤 것도 사슴지 않는 인물. 특히 문상혁을 사이에 두고 그의 전

부인 봉선화(엄현경 분)와 대립하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남편' 죽이 22일(목) 공개한 촬영 스틸에서 오승아는 도도하고 지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비주얼로 눈길을 끈다.

특히 웃음이 없는 단단한 눈빛과 한쪽 입꼬리를 올린 표정에서 오승아만의 야망이 느껴진다. 이와 함께 극중 아버지 정성모(윤대규 역)와 마주한 오승아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오승아의 눈망울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망의 팜프파탈로 분해 선보일 오승아의 연기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진다.

MBC '두 번째 남편' 제작진은 "오승아는 철저한 캐릭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승아와 윤재경 캐릭터에 자신

만의 매력을 더해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며 "안방극장에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오승아의 변신과, 한기웅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엄현경이 펼칠 대립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MBC 새 일일드라마 '두 번째 남편'은 8월 9일 저녁 7시 5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